

## 강화군, 2024년 송년 맞이 갈라쇼 개최

올 한해도 각자의 삶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오신 군민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 군이 전하는 선물 같은 공연, 「강화 뮤지컬 갈라쇼」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12월 5일 오후 6시 30분 강화 문예회관에서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이지훈이 함께하는 '2024년 강화 뮤지컬 갈라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군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문화 행사로,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팝송과 대중가요 등으로 다채롭고 풍성하게 구성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이지훈이 출연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 뿐만 아니라, 뮤지컬 명곡을 대중적이고 예술성 있게 재구성해 즐거움을 전할 계획이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뮤지컬 갈라쇼는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군민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일시	2024. 12. 5.(목) 오후 6시 30분(오후 5시 30분 선착순 무료입장 / 좌석 미지정제)
장소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강화읍 고비고개로19번길 12)
출연진	차지연, 이지훈
행사내용	인기 뮤지컬 음악, 가요, 팝송으로 꾸며지는 다채로운 공연
유의사항	안전한 관람을 위해 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 2025년 본예산 6,697억원 편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 중점 / 군민체감형 사업 중점 투자 염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85억원 늘린 6,697억원으로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건전재정 기초 아래 소모성 경비와 낭비적 요인은 과감하게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24년 대비 13억원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11.96%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 부족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1,307억원 ▲군민체감형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 466억원 ▲농축수산업 지원 237억원 ▲지역 소멸 극복 269억원 등을 과감히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705억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250억원 ▲보육 및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 17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36억원 ▲경로당 지원 사업 39억원을 반영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60억원,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56억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50억원, 신문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원, 주문도 및 불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 9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95억원, 도로시설물 및 인도정비 76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 15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60억원, 로컬팜 빌리지 조성 30억원,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92억원, 어촌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 41억원,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 14억원을 편성해 우리군의 핵심 산업인 농·축·어업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안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경비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30억원, 별밤야행 등 지역축제 및 행사 운영 16억원, 공공·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 19억원, 장곳항·주문도·외포권역 어촌신활력(어촌뉴딜) 사업 138억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29억원, 우리동네살리기 23억원,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 14억원을 반영해 생활인구 증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제299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과 강화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여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살맛나는 강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방음시설 지원 사업' 추진

### 북한 소음공격 피해주민을 위한 긴급대책



방음시설 설치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북한 소음공격에 따른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인천시 70%, 강화군 30% 분담하여 강화군 내에서도 소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송해면 당산리 35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방음창, 방음문 등 방음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북한 소음방송 지점과의 거리, 실제 거주 인원, 거주기간, 임신부·아동·중증질환자 등 소음공격에 취약한 가구원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송해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 설치

위임을 받을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및 정산 과정 등을 거쳐 지원비를 받게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방음 효과, 만족도 등 실효성을 검토해 사업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다.”라며, “최근 북한 소음공격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방음시설뿐만 아니라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으로, 중앙부처,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대책 추진

## 상황실 운영 및 수시 현장 확인 통한 발빠른 대응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확보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확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군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제설 대책을 내년 2월 말 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의 전체 도로 노선은 주요간선 및 지선 도로 총 289개(438.58km)에 이르며, 석모대교, 교동대교 등 주요 교량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제설차량 12대와 백호우 3대를 고정배치 하고, 제설재 1,800톤을 확보하였으며, 읍·면은 청소

차량 및 주민제설단 제설기 280대 등을 가동한다.

또한 단계별 비상근무를 강화할 계획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CCTV 상황실 및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제설작업은 법정도로는 도로과, 마을안길(비법정도로)은 읍·면에서 분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차도의 경우 제설장비로 제설이 가능하나, 보도의

경우 장비 투입이 어려워 도로 현장근무원 인력만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도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군민들도 ‘내집, 내 점포 앞 치우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강화군, 실전과 같은 산불진화 합동 훈련 실시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9일 ‘산불 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진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 발생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지휘와 장비 투입, 진화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이루어졌다.

강화군 불은면에 위치한 티앤립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 이날 훈련은 건조한 날씨에 민간인의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산림청과 인천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 차량 13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1대, 산불 감시 드론 2대를 투입했으며, 지상 진화 인력 160여 명이 동원됐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단계별 신속한 상황판단 및 분석 등을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체계적인 산불 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진화 대응체계 구축 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실시간 산불 및 진화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신속한 상황 전파, 주민 대피, 진화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태세 확립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 박용철 군수, AI 방역현장 찾아 방역·예방 철저 당부

##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농장 2곳 닭 34,000수 살처분, 발빠른 대처 눈길



AI현장 확인



AI현장 확인

박용철 강화군수가 20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18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체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강화군은 20일 농장내 닭 17,000수와 예방적 차원으로 500m 이내 농장 1곳의 닭 17,000수를 포함 총 34,000수를 살처분했다.

특히 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관련 농장 가금류 살처분, 피해농가 지원예산 확보 등 발빠른 대처로 눈길을 끌었다.

군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구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 주변의 집중소독 및 예찰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시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차량이 농장 또는 축산 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을 활용해 철새가 쉽게 접근하는 농장 지붕 등을 소독하고 있으며, 소독방제 차량 5대를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농장진입로 및 주변 소하천 등을 집중소독하고 있다.

박 군수는 “강화군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차원의 피해 농가 지원 예산도 이미 확보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 명품‘강화섬 해풍배’ 대만 수출 길 올라

## 기상 여건 악화에도 체계적인 관리로 올해 70톤 수출



강화섬 해풍배 대만 수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뛰어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강화섬 해풍배’가 대만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품종은 신고배로 붉은면에 위치한 공동 선별장에서 집하해 당도, 무게, 색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해 검역 검사를 거쳐

대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섬 해풍배는 2007년 27톤 첫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수출량을 늘려 지난해까지 총 1,000톤이 넘는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64톤을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잦은 강우, 일조 부족 등 기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배 관리로 약 70톤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농산물이 밀려드는 어려운 시기에 강화섬 해풍배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어 자랑스롭다”며, “그 품질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조성 박차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박용철 강화군수,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시켜 나갈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화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현장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예정이며, 2025년 해양치유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해수온천을 핵심 해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 배후 2,500만 명의 풍부한 잠재 방문객이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섬으로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통한 관광객 수



해양치유지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요가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2023년 6월에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강화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활성화는 민선 제10대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우리 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양치유지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강화군, 제5회 김치의날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 국무총리상 수상



강화섬김치 국무총리상 수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2일 서울 삼청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5회 김치의 날’ 행사에서 ‘강화섬김치(대표 : 김경호)’가 김치산업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인 11월 22일은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경호 대표는 강화 순무 김치를 포함하여 포기김치 백김치 등을 출품해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강화군의 순무 김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 개최한 제12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강화 순무김치로 최우수 김치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화섬김치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김치 생산업체로 강화군과 수도권수지원단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2020년부터 군부대에 납품을 지

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체다.

또한, 김경호 대표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강화군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김장 김치 나누기, 요양시설에 김치후원, 아동사회복지재단에 장학금수여 등 많은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강화섬 순무 김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김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의 이번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김치의 품질을 더욱 높여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제12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 성료

## 역대 수상자들의 최고의 손맛들이 모였다. 수육에 흘린 닭'대상 수상



강화군 최고의 맛 대상 '수육에 흘린 닭'



제12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0일 강화읍에 위치한 호텔 에버리치 컨벤션 홀에서 '제12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왕중왕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위원장 직무대리, 김성기 지부장을 비롯한 외식업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1회까지 출전해 수상을 한 업소와 특색 음식 업소가 참가해 경연을 펼쳤으며, 김포대학교 식품조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작품성, 대중성, 창의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했다.

이번 대회에의 대상은 찬우정의 '수육에 흘린 닭'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음식 대결 외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역대 경연대회 대상 수상작으로 품평회 및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관내 3대 특색음식거리(별밤거리, 더리미장어마을, 외포리꽃게마을)에서도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전시 및 시식코너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했다.

또한, 지역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는 강화약썩, 인삼(홍삼), 순무, 고구마, 인삼 막걸리, 강화포도로 만든 와인(연미정과이너리), 생들기름, 강화샌드, 송화칩스 등 우리 농·수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 전시관을 운영해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외식업지부와 적극적인 협조 및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2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11. 11.(수) ~ 12. 10.(화)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구분	고급유기질비료	중급유기질비료	저급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1,000㎡당	1,800원	1,800원	1,500원	1,300원
2,000㎡당	3,600원	3,600원	3,000원	2,600원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한다.

**신청방법** 신청서, 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 접수용 봉투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12월 10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를 통해 우수한 강화농산물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품질 및 등급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00㎡당 2,000kg(20kg 기준 100포)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비종에서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지가 여러 타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강화군 내 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업체 및 농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바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소통위원회 위촉식 함께 가져



강화교육특구 시범지역 발족식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31일 교육발전 특구 발대식 및 소통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강화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성공적 운영을 다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화 교육발전특구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 주실 소통위원 위촉식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소통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화중학교 '교육3주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 축사, 교육발전특구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안내를 통한 개념, 기본방향, 주요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강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특히, 박용철 강화군수와 도성훈 교육감이 서로의 시간을 교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잠시 바꾸어, 서로의 입장에서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소통위원회 위촉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 박용열 회장을 비롯한 45명을 교육발전특구 소통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교육발전특구가 강화군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더 나아가 교육역사의 도시로서 인천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은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 '길상공원' 준공식 개최

### 남부권역 첫 어린이공원 탄생! 종합복지타운과 함께 힐링·여가 공간 기대



길상공원 준공식



길상공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일 길상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길상공원은 '강화 숨결의 테마정원'을 주제로 길상면 온수리 82-9번지 일원(약 14,352㎡)에 약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트릭아트 정원 ▲바다 놀이터 ▲산성놀이터 ▲습지원 ▲어린이놀이터 ▲시니어 놀이터 등으로 조성했다.

길상공원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접경 지역 내 경관 조성 및 폭넓은 문화공간 창출의 목적을 갖고 추진했다.

강화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과 함께 남부권 주민들의 여가와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길상공원 조성으로 남부권 주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이 탄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여성리더 초청 평화통일 공감 토론회' 개최

## 통일준비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협의회장 김경호)는 27일 강화읍 에버리치 호텔에서 '여성리더 초청 통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화군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여성자문위원, 강화군 여성리더,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은주 교수를 초청해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합동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협의회장은 "여성리더들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여성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군민들이 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대처해야 하며, 여성리더로서 그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여성리더 초청 통일 강연회



지역 여성리더 초청 통일 강연회

# 창업·일자리센터, 온라인 셀러 창업지원 큰 호응

## 현직 전문가의 실전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효성을 입증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에서 주최한 온라인 셀러 창업지원 사업이 지난 3개월간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 셀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 셀러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신 전자상거래 동향과 실질적인 매출 전략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총 16명의 예비 셀러들은 스마트스토어, 쇼피, 이베이 등 국내외 쇼핑몰의 입점에서 판매까지 현직 전문가와 함께 실전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13명의 예비 셀러가 창업 실적을 달성했고, 특히 차별화된 요소였던 해외 배송비 지원은 실제 판매 성과를 높이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며 화제를 모았다. 해외 배송비 보조 혜택으로 참가자들은 글로벌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총 49건의 판매 실적을 달성해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참가자들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 셀러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며 자신감도 얻었다"며, "특히 해외 배송비 지원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 예상보다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정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예비 온라인 셀러들이 실제로 성공적인 첫 판매를 경험하며 창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기자



창업일자리센터 예비 셀러 맞춤형 교육



# 강화군-인천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명회 개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명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명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의회 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강화군과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강화군과 인천시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강화군은 강화남단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20.26㎢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단계로 나누어 지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 단계 지역 10.03㎢를 11월 주민공람을 시작해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강화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이 농지로 저렴한 조성원가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여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높기에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산업 단지과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물류시설, 해양레저·휴양 복합관광산업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국가유산·농림지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려워 심각한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으로 들어섰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강화군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도 감사를 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 인천시,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총력

## 현장 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2024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 개최 폭설·결빙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 관리,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3일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인천대교(주), 육군 제17보병사단,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본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적설 취약 구조물 79개소, 제설 취약 지역 97개소, 결빙 취약 구간 106개소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 예정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 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파 쉼터 825개소를 지정하고, 쉼터 운영

현황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시와 군·구,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재대책회의

역사  
기고

## 미군의 침략, 신미양요

이경수



광성보 손돌목돈대

## 등거리 외교

等!

‘등급 등’이라는 한자입니다. 1등, 2등, 할 때의 그 ‘등’입니다. 그런데 等 자에 ‘같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등거리(等距離)는 같은 거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등거리 외교’란 이 나라 저 나라에 같은 거리를 두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외교하는 걸 말합니다. 국어사전은 ‘어떠한 나라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마다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등거리 외교를 정의합니다.

고려는 등거리 외교라고 할만한 대외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안정과 부강을 꾀했습니다. 조선 광해군도 비슷했지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정책을 썼습니다. 인조가 쿠데타로 즉위하고 명나라로 확 기울어버리는데, 이게 정묘·병자호란의 한가지 원인이 됐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쪽 나라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우방이고 6·25 전쟁에서 큰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첫 만남은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신미양요이지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돈돈하지만, 그들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싸우던 적국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언제든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의리, 정(情), 명분,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유연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냉철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미군, 오다

1866년(고종 3)에 프랑스군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퇴각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871년(고종 8) 신미년, 이번엔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또 강화도입니다.

프랑스가 자기 나라 신부 처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었죠. 미국은 자국 선박 제너럴셔먼호를 격침한 책임을 묻는다는 형식으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병인양요 얼마 전, 미국 국적으로 분류되는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멋대로 거슬러 올라와 행패를 부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백성 여럿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장삿배라고 하지만, 배 안에 대포가 있었고 선원들도 무장한 상태였어요. 결국, 평안감사 주도로 조선 백성들이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웁니다.

1871년(고종 8) 신미년 5월 16일(양력), 일본 나가사키 항을 출발해 조선으로 향한 미국 함대는 다섯 척 군함에 병사 1,230명 규모였습니다. 대장 배인 기함 콜로라도호, 알래스카호, 베니시아호, 모노카시호, 팔로스호입니다. 이들을 로저스 제독이 지휘했어요.

5척 군함 가운데 강화도 침공에 직접 투입된 배는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들입니다. 염하가 깊지 않아서 무겁고 큰 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6월 1일, ‘손돌목 포격 사건’이 터집니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은 외국 선박의 염하 진입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함이 함부로 손돌목까지 올라온 겁니다. 바닷물의 흐름과 깊이 그리고 경계 시설 등을 살피려는 의도였습니다. 명백한 침입 행위입니다.

손돌목의 조선군이 미군함을 향해 먼저 화포

를 쏘았고, 미군이 대응 사격하면서 쌍방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군의 기세에 눌린 미 군함이 남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미군은 조선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거부했습니다.

침략자와는 그저 싸울 뿐, 타협은 없다! 대원군 뜻이 이리했습니다. 손돌목 포격 사건 이틀 뒤인 6월 3일,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이 수백 명 병사를 이끌고 광성보에 옵니다. 대원군이 그를 진무중군으로 임명해서 강화로 보낸 겁니다.

진무중군은 진무영의 중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무영의 수장은 진무사입니다.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합니다. 진무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강화부성(강화산성)을 지키며 조정과의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광성보의 총지휘관은 중군 어재연입니다. 이견장은 어재연을 “체격이 장대하고 철인(鐵人)의 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장사로 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 광성보 전투

6월 10일,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합니다. 초지진을 방어하던 조선군은 미군의 함포 사격에 눌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초지진에서 하룻밤 묵은 미군이 다음 날인 6월 11일(음력 4월 24일)에 덕진진마저 무너트립니다. 이어서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미군이 초지진에서 군함 타고 올라와 덕진진을 점령하고 또 군함 타고 올라와 광성보에 상륙한 것이 아닙니다. 초지진에 상륙한 뒤, 육로로 덕진진 거쳐 광성보까지 온 것입니다.

광성보를 향해 미군이 포를 쏘아댑니다. 염하 따라 올라온 군함에서도 사격이 계속됩니다. 어



미군함 모노카시호



김현경 묘

재연 부대는 동·서 양쪽의 포격을 견뎌내며 버팁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미군과 끈질긴 백병전을 펼칩니다. 물러섬 없는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광성보마저 적에게 떨어지고 맙니다. 조선군 전사자는 어재연 장군을 포함해서 350여명, 미군 전사자는 3명이었다고 합니다. 광성보 전투는 조선군의 패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재연과 그의 병사들을 숭모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외적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를 지키던 책임자인 검찰사 김경징과 강화유수 장신은 청나라 군대가 갑곶으로 접근하자 바로 달아났습니다. 병인양요 때 강화유수 이인기도 프랑스군이 부성으로 몰려오자, 서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 복장으로 변장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미군은 승리했습니다.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그래도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이겼는데도 기가 꺾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광성보 조선군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고 처절했기에 싸우면서 질린 겁니다.

다음 날, 6월 12일, 미군은 강화도에서 철수해서 정박지인 인천 물치도로 돌아갔습니다. 물치도는 작약도로 불리던 섬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물치도에 작약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최근까지 그렇게 호칭했던 것인데, 이제 옛 이름을 살려 물치도라고 합니다.

6월 10일 초지진 점령, 6월 11일 덕진진과 광성보 점령, 6월 12일 철수. 미군이 강화에 상륙해 일을 벌인 기간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강화읍내로 진격하지 않았습니.

원래는 강화부성까지 쳐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조선 병사들의 위세에 놀라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식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미군의 침공 계획이 광성보까지만 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 힘을 보여주면, 조선 조정이 굴복하고 개항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조선 조정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조선 개항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물치도에서 철수합니다. 광성보 전투 치르고 20여 일 흐른 7월 4일입니다. 이렇게 신미양요가 끝났습니다. 떠나가는 미 군함에 우

리 수자기(帥字旗)를 비롯한 각종 군기와 무기 등이 실려있었습니다.

### 진무천총 김현경

강화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강화유수가 조정 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고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루는 텅 비었고 흙 참호는 모두 메워졌기에, 즉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흙을 파냈더니 중군 어재연과 그의 친동생 어재순, 대술군관 이현학, 겸중 임지평, 본영 천총 김현경이 피를 흘리고 참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본영 천총은 진무영 천총을 말합니다. 천총은 중군 아래 장수입니다. 병인양요 때 순무사 이경하, 순무중군 이용희, 그리고 순무천총 양현수였습니다. 순무사 이경하는 한양 조정에, 중군 이용희는 김포 통진부에 있었고, 군사를 지휘해서 정족산성으로 간 이는 천총 양현수였습니다.

신미양요에서는 진무사 정기원, 진무중군 어재연, 진무천총 김현경입니다. 진무사 겸 강화유수 정기원은 강화유수부에 있었고, 중군 어재연과 천총 김현경은 함께 광성보에 있다가 전투 중 함께 전사했습니다.

김현경(金鉉曠, 1811~1871)은 강화에서 태어나 1840년(헌종 6)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어재연 장군이 오기 전부터 광성보를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1일 벌어진 ‘손돌목 포격 사건’ 때는 당시 진무중군 이봉억과 함께 포격전을 지휘했습니다.

신미양요가 끝나자, 고종이 김현경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공조참의로 추증했습니다. 광성보 쌍총비각에 모신 광성과수순절비는 김현경 등의 죽음을 기리며 세운 것입니다. 김현경 묘가 원래 송해면 하도리에 있었는데, 1983년에 강화읍 국화리로 옮겨 모셨습니다.

《승정원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기감사 박영보가 고종에게 아뢴 말입니다. “광성(廣城)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진무중군(어재연)이 새로 부임하여 미처 두서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영보



어재연 장군 초상(강화역사박물관)

의 말을 통해 어재연이 광성보를 지키던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날짜를 따져볼게요. 어재연이 광성보에 온 날이 6월 3일이고 전사한 날은 6월 11일입니다. 광성보에 머물던 기간은 열흘이 채 안 됩니다. 주변 지형지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상황을 잘 아는 부하 장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해서 작전을 세우는 것이 좋았을 것도 같습니다. 《속수증보강도지》에 따르면, 김현경이 어재연 장군에게 진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요청했습니다. 강화 지형에 익숙한 천총 김현경의 그때 나이 61세, 중군 어재연은 49세였습니다.

김현경은 어디로 진을 옮기자고 했을까요?

고립된 광성보 손돌목돈대는 위험하니 대모산으로 옮겨 가서 적을 맞자고 했습니다. 지금 덕진진 사거리 서쪽이 대모산입니다. 하지만, 어재연이 거부했습니다. 김현경이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습니다. 미군은 광성보로 진격하기 전에 대모산부터 장악했습니다. 만약, 어재연이 김현경의 뜻에 따라 광성보가 아니라 대모산에 진을 쳤다면 전투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 기고 석모도 출신 고우석, 내년에는 반드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길...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2024년도 국내외 프로 야구가 모두 끝났다. 한국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연고지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기아타이거스가 우승했으며, 미국에서는 동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LA다저스가. 일본에서는 언더독(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으로 여겨진 요코하마팀이 예상을 깨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LA다저스의 우승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야구 천재로 불리는 일본인 출신 오타니쇼에이가 소속되어있고, 이전에는 한국인 선수였던 박찬호와 인천 출신의 류현진이 이 팀에서 뛰었기에 매우 친숙한 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인천 출신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야구 선수들이 있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천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는 고우석과 류현진, 김택연이었다. 특히 고우석은 강화도 석모도 출신이어서 강화군에서는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우석은 1998년 석모도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인천 서림초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해 본격 야구를 시작했다. 2017년 LG트윈스에 1차 지명됐으며 지난해까지 LG트윈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고우석은 지난해까지 LG트윈스에서 주전 투수로 활약했으며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 대표로 활약하며 실

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진출했다. 제2의 류현진이나 박찬호를 꿈꾸며 미국 프로야구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스카웃되었다. 그러나 올해 성적은 민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빛을 발하지 못해 마이애미 말린스로 팀을 옮겨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여기서도 두드러진 성적을 내지 못했다. 올해 고우석의 활약에 대한 평가도 매우 싸늘하다. 언론으로부터도 외면당해 그가 올해 무슨 활동을 했는지조차 알기 쉽지 않다.

고우석에 대한 평가는 볼의 스피드도 뛰어나지 못하여 제구력도 들쭉날쭉해 한마디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실력을 펼치는 미국에서 뛰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우석은 일단 내년까지는 미국 리그에서 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망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의 실패를 교훈삼아 단점을 보완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면 내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아직까지 시간은 고우석 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관심을 크게 모은 인천 출신 선수는 류현진과 김택연이었다. 동산고 출신의 류현진은 10년간의 미국 메이저리그 활동을 접고 올해 초 한화이글스로 복귀했다. 류현진의 국내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약 한화를 만년 꼴찌에서 중위권 팀으로 끌어올렸다. 본인 또한 다소 경기력의 기복은 있었지만 무난히 10승을 달성했다. 한화는 류현진의 이름값과 활약 덕분에 무려 47번의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국 야구에 1000만 관중 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역대 33번째 100승 달성, 역대 15번째 1300탈삼진 달성, 13년만에 시즌 10승 달성이라는 개인적으

로도 큰 기록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인천 창영초에서 야구를 시작했으며 동산중고를 졸업한 뒤 한화에 입단해 국보급 투수로 활동하다 미국에 진출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상인천중과 인천고에서 투수로 활동하다 올해 오비베어스에 입단한 신인 김택연은 기대 이상으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김택연은 지난 26일 열린 프로야구 시상식에서 올해 '19세의 최고 마무리 투수'란 칭찬을 들으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신인상은 입단 첫해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유효투표수 101표중 93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만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얘기다.

김택연은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평가전에 출전해 인상적인 투구를 펼쳐 이미 세계 야구 관계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이후 오비베어스 선수를 활약하며 올해 3승2패 19세이브를 기록하며 일약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떠올랐다. 인천고에서 뛴 당시 최고 153km 묵직한 직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탈고교급 활약을 펼쳤다. 투구 속도와 동작이 마치 고우석을 연상시킨다고 해 '고교야구의 고우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화도 출신 고우석을 비롯해 류현진 김택연의 내년도 활약이 올해 못지않게 기대된다. 특히 고우석은 반드시 재기에 성공해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며 한국 야구의 도시인 인천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류현진과 김택연도 또 다시 한국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바란다.

## 기고 한강의 끝을 보았는가?



황중섭

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인류의 문명은 모두 큰 강변에서 시작되었다. 이집트의 나일(Nile)문명이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황화(黃河)문명이 그렇다. 우리에게 한강이 있다. 흔히들 우리가 일군 경제기적을 일컬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 한다. 그 강가에 우리 백성(百姓) 2500여 만명이 웅기종기 모여 그 물을 먹고 산다. 그 강위에 서른개가 넘는 다리가 있고, 그 위를 자동차로, 버스로, 전철로 매일 수만, 수십만 명이 지나다닌다.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끝이 어디쯤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봤을까? 한강을 본 사람은 많아도 한강의 끝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강 본류의 길이는 발원지 태백산 검룡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유도(留島)까지 494.4km이다(참고:네이버 한강)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각각발원하여 흐르다 경기도 양주군양수리(두물머리)서 합류하여 수도 서울을 동서로 가로 질러흐르다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일산 신도시 앞)에서 다시 임진강과 합수(合水)하여 강화도 동북단 연미정

(燕尾亭)앞에서 한쪽은 강화만으로, 또 한쪽은 염하강으로 접어들어 강으로서의 그 생명을 다한다. 한강은 고려시대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세곡(稅穀)과 서해안에서 나는 소금, 해산물, 특산물을 한양으로 운송하는 운송중심로였다. 삼남지방(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거둔 세곡을 (세금을 현물인 곡식으로 거둬) 한양의 광흥창(廣興倉)으로 옮기기 위해 세곡선(稅穀船:조운선 이라 함)을 이용하여 서해안과 강화만을 거쳐 한강으로 올라갔다. 강화만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으로 간만조 때 수심 차이가 무려 9미터나 된다. 그래서 한강을 오르내리는 모든 배는 유도(留島)라는 섬에서 물때를 기다렸다 만조가 되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유도는 사공들이 머물며 기다리던 곳으로 주막은 물론기생집까지 있었던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이조시대에는 바닷배를 이용하여 독섬 나루까지 짐을 싣고 올라가 거기서 다시 강배(江船)로 갈아타워 원주와 충주까지 물길이 연결 돼 있었으나 강바닥이 모래로 쌓이면서높아져 마포가 마지막 포구가 돼 한양에서 팔 새우젓을 내렸기에 지금까지 마포하면 새우젓을 연상하게 한다. 그 외 노량진, 양화진 등도모두 그 옛날 배들을 대던 나루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이조시대에 강화도의 한강 입구는 사람의 인후(咽喉)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

충지였다이순신 장군이 만일 명랑(鳴浪) 해전에서 패하여 왜구의 군함이 남해와 서해를거쳐 강화만에서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진격할 기회가주어졌다면, 한양을 방어할 겨를도 없이 왜구에 침략을 당했을 터이나, 다행이도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남해를 거치지 못하여 육지로 진격을 했던 관계로 조선이 시간 벌여 명의원군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한강이 바다로 접하며 그 생명을 다하는 바로 그 지점에 단 몇초라도 임종(臨終)을 늦추려는듯 유도(留島)가 버티고서 물길을 막고있다. 그러나 그 섬위로 불행히도 남한과 북한을 경계 짓는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채 수풀만 무성하다. 한강! 우리 민족의 젖줄, 수천 수만년을 그렇게 흘렸을, 그리고 그렇게 흐를 그 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면 그에게 빌고 싶다. "우리가 이룬 현재의 기적보다 더 큰 미래의 기적을 이루게 해 달라고, 아울러 그 섬위로 지나는 선 없는선도 함께 지워 달라고"...참고: 연미정(燕尾亭)은 강화도 동북단에 위치해 있으며,그 지형이 제비 꼬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그곳에서 유도(留島)와 북쪽으로 황해남도 개풍군과 남쪽으로 김포시 월곶면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한강이 바다로 접하는 한강의 끝을 조망할 수 있다.

## 강화교육지원청,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따뜻한 마음 전해' 학부모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진행



강화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진행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은 11월 21일 강화도 꽃마니 에뜨락에서 학부모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학부모님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사랑나눔은 순무김치 50통(2kg), 배추김치 50통(3kg)을 안젤로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스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하였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원봉사 실시 - 교육 수료자가 집수리봉사 참여..선순환 체계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원봉사

이번 집수리봉사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상·하반기 집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진행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주민들의 자활 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셀프집수리교육(기초·심화반)을 운영해 수료생 30명을 배출했다.

강화군 마을주택관리소는 행복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 대여(충전해머드릴외 59종)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집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인택배함 및 남산마을 집수리 지원센터 연계로 집수리 서비스 제공 등 주거 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등 지역맞춤형으로 주민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강화군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양사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겨울나기 순무김치 전달 어려운 이웃과 행복더하기 사랑의 순무김치 나눔 행사 가져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겨울나기 순무김치 전달

이른 아침부터 선원면 소재 도래미마을에 모인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준비한 재료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손질하며 순무김치를 담았다.

회원들은 정성으로 담은 순무김치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김미경 회장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순무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눔에 앞장서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강화군민 모두가 넉넉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15일 ‘어려운 이웃과 행복더하기, 사랑의 순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본격 겨울을 앞두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

# 대한한돈협회 강화군지부, 한돈 ESG 지역사회공헌 나눔 실천

## 한돈 462kg, 600만 원 상당 기탁



이웃사랑 상품기탁식(대한한돈협회 강화군지부)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2일 대한한돈협회 강화군지부(지부장 조규성)에서 ‘한돈 ESG 지역 사회공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한돈 462KG, 6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받은 한돈은 230여 개로 소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규성 지부장은 “한돈 ESG 지역 사회공헌 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돈협회가 지속적인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돈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돈협회 강화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며, “한돈협회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담아 소외된 이웃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쌀작목연합회 사랑의 나눔 강화섬쌀 1,000kg 기탁



이웃사랑 상품기탁식(강화군쌀작목연합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5일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에서 쌀 5kg, 2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상고온 등의 좋지 않은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노력과 땀으로 생산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강화군쌀작목연합회는 1998년 쌀 재배 전문 농업인 중심으로 지역 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지난 26년간 새로운 기술 보급 및 강화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등 농업인의 권익에 앞장서 왔다. 또한, 푸드뱅크에 매년 쌀 13가마씩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기관 회장은 “어려운 일도 서로가 힘을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듯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강화군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제1회 강화지역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여 초대합니다!

**일시 | 2024년 12월 7일(토)**  
**장소 | 아가페 다문화 가족 행복센터(2층), 강화병원 맞은 편**  
**시간 |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바자회 품목**

- ▶ 구제 옷, 신발(유아~시니어층) 등
- ▶ 강화 순무김치, 식혜(직접 준비 한정)
- ▶ 잔치국수(12시~13시)

**나눔**

커피와 마스크, 어린이 도서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나눌수 있습니다.

**당일 스트레스 열관검사 무료실시**

아가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구제품 기부와 후원은 계속 접수합니다.

**문의전화(대표) : 010-3966~3927**

# 감기에 좋은 겨울 차 5가지

따뜻한 차 한잔으로 혈액순환과 신체 온도 상승으로 감기를 예방하세요!

겨울철 감기에 걸리면 보통 2주 길어도 3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진다. 하지만 면역력 약화로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따뜻한 차 한잔으로 감기를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

감기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c, 유기산, 사포닌을 들 수 있다. '비타민 c'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고 면역기능 향상,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며,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은 입맛을 돋게 하고 피로를 풀어 주어 감기를 낮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삼에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사포닌'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항염증에 효능이 있어 감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차'를 마시면 좋은 이유는 감기에 걸리면 발열, 콧물, 목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몸속 수분이 부족하기 쉬워 보충이 필요하며, 따뜻한 음료의 섭취가 몸의 혈액순환과 신체 온도를 높여 코와 기관지에서 객담 등의 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1. 생강차



생강은 강력한 살균작용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비염, 축농증,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의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해열작용과 소염작용에 뛰어난 무를 함께 달인 '무·생강차'는 염증성 코감기에 좋으며, 독소 배출과 체온 상승, 항균 작용이 뛰어난 마늘을 함께 넣어 만든 '마늘·생강차'를 만들어 먹어도 좋다.

## 2. 감잎차



감잎에는 사과의 30배에 해당하는 다량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어 감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뇨작용과 몸의 붓기를 빼는 효능도 있다. 게다가 재탕을 해도 무방하여 아이들에게 보리차 대신 감잎차를 생수처럼 먹이면 좋다.

## 3. 도라지차



도라지는 섬유질, 칼슘, 철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기침에 특히 도움이 된다. 가래,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 효과가 뛰어나 편도선염, 기관지염과 같은 목감기에 좋다. 도라지청으로 만들어 한스푼씩 넣고 차로 마시면 된다. 사포닌은 도라지 외에 인삼에 많이 들어 있고, 우영에도 들어 있어 '인삼차'나 '우영차'를 먹는 것도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준다.

## 4. 대추·파뿌리차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에게 좋고, 신경 안정 및 염증, 진통 완화, 해독 작용에 효능이 있다.

파뿌리에는 비타민 a, 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땀을 내거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어 대추와 파뿌리를 함께 넣어 끓인 '대추·파뿌리차'를 감기 초기에 먹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목감기 예방에 좋은 '배'를 함께 넣어도 좋다.



## 5. 유자차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 정도 많아 목의 염증과 기침을 가라앉히는 등의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또한, 유자의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목감기에 좋다.

유자 껍질 속 '헤르페리딘'이란 성분은 항암, 항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 구연산, 사과산과 같은 유기산은 '매실'과 '모과'에도 들어 있어 유자차 대신 '매실차'나 '모과차'를 먹어도 좋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



# HADA

interior design company

토·탈·인·테·리·어

디자인하다

신축공사·목조주택  
인테리어 전문

대표 장원재 M. 010-9008-4967

T. 032.710.4967 F. 032.721.4967

Office.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25 Factory.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84번길



##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